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 개장...반려동물 친화도시 본격화

영산강 하천부지에 중·소형견 1100평·대형견 440평 규모 조성
이달 한 달간 시범 운영... ‘체류형 펫 관광’ 마중물 역할 기대

나주시가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해 ‘체류형 펫 관광’지 입지를 높인다.
나주시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과 체류형 펫 동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주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반려견 놀이터는 나주대교 아래 영산강 하천부지(금천면 원곡리 947)에 문을 열었다.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여가 공간으로 반려견 체형에 따른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소형견 전용 구역 약 1100평



금천면 원곡리 일원에 조성한 반려견 놀이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나주시 제공>

과 대형견 전용 구역 약 440평으로 나눠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맹견은 출입을 제한하며, QR 코드를 통해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입장하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야간 이용은 제한되고 폭우·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일시 휴장할 수 있다.
이용자는 반려견과 동반 입장해야 하며 출입 시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 배변 즉시 수거 등 기본적인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로 체류형 펫 관광' 노린다.
나주시는 2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 운영 현황과 이용자 의견을 점검한 후 보완 사항을 반영해 3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반려견 놀이터는 나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1단계 인프라다.
무엇보다 '나주 영산강 멍멍파크 페스티벌'과 연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반려견 놀이터는 체류형 반려동물 관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연계해 나주를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지방소멸 대응 우수도시 선정

국가발전 리더십 대상 시상식

화순군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 국가발전 리더십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활력 선도 도시상'을 받았다. <사진>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 13개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열렸다.
화순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80% 이

상 달성 등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소멸대응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복지·돌봄, 미래산업,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재관 화순군 홍보소통담당관은 "민생 안정과 미래 준비를 함께 추진해 온 군정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 추진한다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군민 불편 해소

장성군이 무허가 단독주택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장성군은 이달부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 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주택이다.

그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시 제약을 받았거나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해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군은 우선 30동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수요가 많으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을 먼저 조사한 뒤 지적재조사 제외 지역 신청을 받는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가능 여부와 건축법, 관련 규정상 적합 여부를 확인한 다음 건축

물대장에 등재한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인허가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현장 조사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등재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는 재산권 보호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지난 29일 담양군 봉산면에서 재배한 '금실' 딸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새해 첫 상차식이 열렸다. <담양군 제공>

담양 봉산 금실 딸기, 새해 첫 싱가포르 수출길 올랐다

미국·홍콩 등 연간 30t 수출계약

국내 딸기 주산지인 담양에서 재배한 봉산 금실 딸기가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담양군에 따르면 봉산딸기영농조합은 K-푸드 열풍에 힘입어 미국, 홍콩, 싱가포르와 연간 30t의 딸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딸기 품종은 '금실'로,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으며 장기간 보관 시에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수출용으로 적합한 품종이다.
군은 앞으로 담양군에서 자체 개발한 '죽향' 품종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수출 시장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출 특화 품목 직불금과 공동 선별비 등을 지원해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

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상차는 올해 첫 수출로 담양 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해외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접수

나주시가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2026 예술인 활력소득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과 지역 문화예술 기반 강화를 위해 광주·전남 최초로 시행했다.
올해는 연 4회 분기별 모집으로 전환해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중위 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일 기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서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월 384만6357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나주시상상품권 모바일 형태로 1인당 연 180만원, 분기별 45만원이 지급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AI 접목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목표 대비 211% 참여율 호응

장흥군이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영농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애초 계획 대비 211%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매년 겨울철 농한기를 활용해 변화하는 농업 정책과 새로운 영농기술, 품종 정보를 제공해 한 해 영농설계를 지원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오는 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열린다.
이번 교육은 AI 활용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재배기술과 친환경농업, 블루베리 등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9개 과정 17회, 총 1,230명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비

롯해 농작업 안전, 과수화상병 예방, 농업 안전사용, 농정시책 등 변화된 농업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읍·면 순회 교육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농업인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한 공익작물제 의무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벚 재배기술 등 미래 농업을 대비한 핵심 영농기술을 농업인들이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실용 중심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농어촌 홍보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집

함평군이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고 도시민 농촌 유지 홍보 활동을 수행할 '귀농귀촌 동네작가' 3명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영상 촬영과 이미지 편집이 가능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 중 농촌과 귀농귀촌 가치 발굴에 관심 있는 함평군민이다. 다만 로컬크리에이터 홍보단 등 유사한 사업 참여자는 제한한다.
선발된 동네작가는 농촌생활, 귀농귀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지역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

해 개인 SNS와 귀농귀촌 대표 플랫폼 등에 게시해야 한다. 활동 기간은 11월까지이며, 활동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함평군청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다양한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할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상수도 현대화 우수율 92%로 개선

담양군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담양읍·창평면 지역의 우수율을 92%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가운데 실제 사용자에게 공급돼 요금으로 정산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담양군의 우수율은 사업 추진 전 65%에 머물렀으나, 이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92%까지 크게 향상됐다.
군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9억원을 투

입해 스마트 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45만ℓ의 수돗물 생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해 향후 수도 요금 인상 억제 등 군민 체감형 물 복지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지속해 추진해 군민에게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강진군 제공>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속도낸다

현장 조성·기반 시설 구축 본격화

강진군의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핵심 사업으로 지역 여건과 산업 구조를 고려한 계획적·체계적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와 인·허가 협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이번 착수를 통해 본격적인

현장 조성과 기반 시설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제2일반산업단지는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고려해 교통·물류 여건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 등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과의 연계한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